

# 5백 명 도둑 사성제 법 듣고 아라한 되다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6)

5백 도둑의 사형 막은 부처님의 제도

사위국과 비사리국의 두 나라는 원한이 있어서 늘 서로가 노략질하고 괴롭혔다. 사위국의 왕이 생각했다. '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 마땅하다. 어찌 백성을 괴롭히는 도둑들을 놓아두겠는가?' 왕은 곧 장사에게 칙령을 내렸다. "그대는 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둑들을 잡아 오라." 이때 사위국의 비구가 안거를 마치고 비사리로 가던 중에 길을 잃고 도둑들의 소굴에 떨어졌다.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도둑들이 대답했다. "우린 비사리로 갑니다." 비구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도 비사리로 가는 길인데 길을 몰라서 그러니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도둑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도둑이라 험한 길로만 다니는데, 그대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따르겠단 말지요?" 비구들이 다시 말했다. "괜찮습니다. 길을 몰라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오." 이때 사위국 왕의 장사와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비구들과 도둑들을 한꺼번에 붙잡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이놈들이 모두 도둑떼들입니다." 왕이 말했다. "먼저 비구들을 데리고 오나라." 다시 왕이 말했다. "그대들은 출가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도둑이 되 있는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도둑이 아닙니다." 무슨 까닭으로 함께 따라다니게 되었는가를 비구들이 자세히 왕에게 말했다. 그러자 왕은 비구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왕은 다시 도둑들에게 물었다. "저기 비구들이 너희와 같은 무리가 아니더냐?" 도둑들이 대답했다. "저희와 같은 무리입니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말했다. "도둑들을 데리고 가고 비구들을 다시 불러오나라." 왕이 비구들에게 다시 물었다. "비구가 거짓말을 하다니. 그것도 관청을 속이 다니. 도둑들은 너희가 그들과 같은 무리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어째서 아니라고 하느냐?" 하지만 비구들이 여전히 처음과 같이 대답하니 왕은 할 수 없이 비구들을 석방했고, 도둑들만 법대로 다스리도록 했다. 5백 명의 도둑들은 곧 사형에 처해지게 됐다.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게 된 도둑들은 크게 울부짖었다. 이때 멀리서 부처님이 도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물으셨다. 아난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이들은 5백 명의 도둑들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죽이려 하니 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백성들의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여야 하거늘 어떻게 일시에 5백 명의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라고 하여라." 아난은 명령을 받들어 바로 왕에게 갔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왕이 말했다. "존자시여, 저도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도 죄가 많거늘, 하물며 5백 명을 죽이는

왕은 즉시 도둑들을 세존께 보냈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도둑들을 제도하려고 땅바닥에 앉아 계셨다. 도둑들이 멀리서 부처님을 뵈자 결박이 저절로 풀렸다. 놀란 그들은 땅에 엎드려 부처님 발 아래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그 인연을 살피시고, 그 인연에 따라 보시와 지계와 행업, 보승, 괴로움, 쌓임, 사라짐, 도의 네 가지 진리의 법 등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로 5백의 도둑들이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가까이 출가하지 않겠느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만약 일찍 출가했다면 이런 괴로움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 저희를 출가하도록 제도하여 주십시오."



삼화 · 강병호

것이야 어머하겠습니까? 다만 자주 마을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노략질하기 때문이니, 세존께서 그들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석방하여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아난이 돌아와 부처님께 왕의 말을 전하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왕에게 석방만 하라고 말하여라. 내가 오늘 이후로 다시는 그들이 도둑질 하지 않도록 하리라." 아난은 부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해 먼저 형장의 감독자에게 말했다. "이 모든 죄인들은 세존께서 이미 구하셨으니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왕에게 갔다. "세존께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다. 비구들이." 이때 5백 명의 도둑들이 운몸에 걸쭉한 옷이 변하여 세 가지 옷(三衣)이 되었다. 또 발우와 거동이며 차림새가 저절로 백 살 된 오랜 비구와 같이 변하면서 모두가 아라한이 되었다. <마가승기율> 제19권에 나온다. <경률이상>에서 발해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ihollo@fynbul.com

※수다원과(須陀洹果) 성문사과(聲聞四果)의 첫 번째 경지.  
※성문사과(聲聞四果) 성문들이 수행으로 도달하는 네 경지를 말한다. 단계는 수다원과(須陀洹果)·사다함과(斯陀含果)·아나함과(阿那含果)·아라한과(阿羅漢果)이다.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⑥



## 인연의 소중함

### 추억의 집

내가 살던 집은 지금도 이웃에 있다. 한때는 그 집에서 행복 했었다. 결혼하여 처음 장만한 넓은 마당의 작은 기와집이다. 서른이 갓 넘었던 그때, 나는 그곳에서 연년생 내 아이들을 키웠고, 불교를 모르면 젊은 또래들을 모아 '연꽃모임'을 만들었다. 불심으로 불붙은 나와 도반들은 우리 집에 모여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가끔 큰스님을 모셔 범회라도 할 때면 잔치하는 기분이었다. 그 때 매일 손님 맞이로 신이 났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감히 중정스님이셨던 윤교암 스님을 너무도 격 없이 공양을 청했고, 스님의 잔잔한 미소와 자비로 들려주신 설법을 들었던 일이다. 그리고 일타 큰스님께서도 다른 집 부탁 다 물리시고 꼭 우리 집으로 오셔서 공양하시고 우리를 위해 범문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범어사 수계 산림 범회가 있을 때 마침 일타 큰스님 생신날이어서, 증명법사 스님 모두가 우리 집에 오셔서 공양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음식 솜씨도 없는 사람이 정말 겁이 없었지 싶다.

### 작은 화분 하나가 사라진 세월 간직해 줘 내 앞에 다가온 모든 것 '공부'

### 알아보지 못하고 짓는 업 많음 알아야

훗날 그 집이 너무 협소하고 불편해서 새로 지을 때, 일타 큰 스님께서 상량 목에 글을 써주셨다. 그 외 해암 전 종정 스님, 현 범전 전 종정 스님, 자운 대율사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그리고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범정 스님 해정 스님 등 많은 큰스님들이 다녀가신 그 도량을 팔고 나올 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복에 넘치는 인연을 짓게 된 고마움 때문이다. 다행이도 그 집은 '해암사'라는 현판을 걸게 될 스님이 오셨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스님들의 귀한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기에, 그 집은 나의 젊은 시절 꿈이 살아있는 추억의 도량이다. 그러나 최근에 그 동네 모두가 재개발로 어수선 해졌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스님도 거처를 옮기셨다. 세월의 흐름 속에 모두가 변하지만 실로 섭섭한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오랜만에 그 집에 다녀왔다. 오래 전에 산에서 가져와 돌담 벽에 부쳐두었던 콩 난이 담장이 처럼 널얼이 되어 담장을 덮었고, 뜰에는 내가 심었던 차나무와 동백나무 다른 여러 가지 나무들이 훨씬 커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 집은 너무나 쓸쓸했다. 적막했던 집을 보자 옛날 생각이 났다. 많은 도반들과 스님들로 북적이던 집이었는데... 그 때 오셨던 스님 중에는 고암 종정 스님과

자운 스님 일타 스님 해암 스님 등 임적하신 스님들도 있으니 세상사 '무상'임을 새삼 느꼈다. 이제 어렸던 우리 아이들이 서른이 넘었으니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고 집의 모습도 변했지만 내 가슴에는 그 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날마다 범우들이 찾아와 부처님 이야기, 절 이야기, 스님들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냥 행복 했던 그 때가... 마당의 차나무 한그루와 콩 난을 가져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화분에 심었다. 세월은 사라져갔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그때'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추억은 진해지는 것 같았다. 작은 화분 하나가 지나간 시절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이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간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화분 속의 나무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는 그 추억의 그 시절을 간직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잡초를 뽑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 집 베란다 작은 화분 하나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름 모를 씨앗이 자랐다. 잡초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그 풀을 뽑아냈다. 뽑아들고 보니 내가 직접 심은 것이 아닐 뿐 이 역시 흙이 낸 생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함참을 손에 잡힌 잡초를 바라보며 나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 입에 달고 살면서 그렇게 '내 것'과 '아닌 것'에 분별이 확실하며, 생명에 대한 생각이 가벼웠을까. 정말 부끄러웠다.

알지 못하는 인연도 인연이다. 그 꽃씨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날아온 씨앗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그 틈새에서 생명을 키웠다. 말할 수 있는 있는 것, 소리 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만이 생명은 아니다. 입으로 나뉠데던 공부는 다 어디로 갔는지.

반나절을 잡초 생각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 짧은 순간에 이뤄진 '내 것'과 '아닌 것'의 분별심은. 공부해 책 속에 있지 않았다. 또 말(言) 속에 있지도 않았다. 공부는 내 앞으로 다가온 모든 것들이 공부였다.

### 길을 가다가

트럭에 실린 어항을 보게 되었다. 어항 속에는 작은 새끼 오징어와 전어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다. 바다에 살던 이들은 바깥세상을 보고 어떤 마음일까.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유리벽에 부딪히며 어항 속을 맴돌고 있다. 어항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이 나의 식탁 위에 오를 지도 모르는 일이다. 알아보지 못하고 짓는 업이 너무나도 많음이며, 그것이 '미혹'일 것이다. 죽음을 반기는 생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곳을 지나오면서 광명진언과 나무아미타불을 외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 특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불편... 특히 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40×80cm	160g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참회진언 타올	30수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동업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 승광불교미술원

- 불상 : 원형조각, 전문 동불 특수불 각종불상
- 개금 : 벗겨지지 않는 순금개금 개발
- 개채 : 석채 및 유미라이트, 각종안료, 개채
- 탱화 :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 선택 (먹탱화, 홍탱화, 채색)
- 현재 : 종중사 이사. 범종불사
- 불사 상담 ● 불교용품점 운영

전화 02)491-5336 02)494-7478  
공방 031)595-6558 031)591-7478  
원장 011-226-5336 공방장 010-3179-6561

## “참된 부처님 제자는 이사理事에 걸림 없는실력 갖춰야!”

한국 무문관 수행의 효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후 출연시 사라진 전설적인 선사를 바부영 기자가 발굴·추적하다

무문관수행의 전설 《석영당 제선선사》  
박부영·원철·김성우 공저 신국판 양장 1 흑백 256쪽 1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구두선口頭禪을 떠난 실참 강조한 수행자의 사표師表

제선선사의 수행력은 추종을 불허하고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며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진력을 보여준다. 많은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의심이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과연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것인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 의심을 한다. 그 점에서 선사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이신 경지는 모든 수좌들에게 희망과 등불을 밝혀준다.

비교과소통 02-2632-8739, buddhaphia5@daum.net